

북스

Books

그곳에선 매일 예술과 문학이 춤췄다

카바레 리사 아피나네시 지음

한 공간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문화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하다. 그 기원을 고려나 조선시대의 기방으로 볼 것인지, 서양의 카바레로 받아들이는 건지는 제치더라도, 하지만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이 가능한 트인 공간을 떠올린다면 기방 보다는 카바레 쪽에 더욱 힘이 실린다.

인문학자 리사 아피나네시의 '카바레'는 카바레가 인류 문화사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놓았다. 부제 '새로운 예술 공간의 탄생'에서 알 수 있듯, 저자는 카바레에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곳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 카바레가 유명 예술인들의 아지트 구실을 했다는 점을 떠올리면 저자의 의미 부여는 틀린 것이 없다.

현대적 카바레의 효시는 1881년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르에 생긴 '검은 고양이'다. '카바레(Cabaret)'라는 단어가 '포도주 창고'나 '선술집'을 뜻하는 프랑스어라는 사실은 카바레의 기원을 쉽게 유추할 수 있게 한다. 15세기 등장한 노래와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카페콩세르'에서 발전한 형태로 본다.

카바레 탄생의 도화선은 '이드로파트(Hydropaths)'라는 이름의 문인 집단이다. 젊은 시인 에밀 구도가 결성한 모임으로 '물 치료 요양자들'이란 뜻을 가졌다. 이들은 매주 모여 시와 소설 등 작품을 선보이고 노래, 일극, 짤막한 소품 등을 공연하기도 했다. 문인들에서 다른 예술가들로 구성원이 다양해진 것이다.

대동에서부터 카바레는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아방가르드를 자처하던 젊은 예술가들의 실험 무대였다는 점과 둘째, 당대의 사건을 다루고 도덕과 정치, 문화를 비판적으로 반영하는 풍자 무대라는 점 등이다. 최고의 카바레는 이런 특징을 가장 잘 살린 곳을 말했다. 카바레의 본질은 '반골' 기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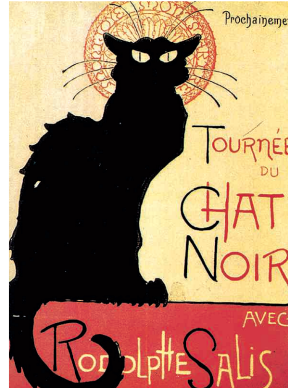
저자는 이렇게 태어난 카바레가 인근 나라인 독일, 영국, 스페인은 물론 미국까지 건너가 어떠한 활약을 했는지 보여준다. 독일에서는 20세기 초 니체 등의 영향으로 유머와 디오니소스적 요소들이 예술의 한 부분으로 정당하게 평가 받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카바레 탄생 움직임이 꿈틀거렸다.

몽마르트르 '검은 고양이'의 풍자 정신에 매료됐던 독일인 알베르트 랑겐과 프랑크 베데킨트는 풍자 주간지 '짐플리치시무스'를 창간한다. 삽화 가득한 이 주간지는 이후 수십년 동안 권위를 생산·행사·수용하는 모든 이들 뿐 아니라 문학계의 악취미와 위선적 도덕률을 공격해 독일 전체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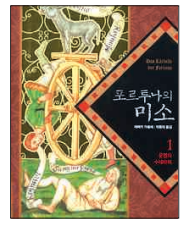
피카소의 작품을 처음 선보인 바르셀로나의 '네 마리 고양이', 영국 아방가르드가 모여들었던 런던의 '금송아지 굴', 보헤미안들의 사랑부상트페테르부르크의 '길 잃은 개' 등은 풍자와 저항으로 시대정신을 고취했던 예술가들의 자공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카바레들이다.

자유의 공간에서 '카바레리스트'들이 읊었던 시나 노래의 가사, 다양한 삽화들은 카바레의 '배달함'을 잘 말해준다. 카바레 역사는 서양 예술계의 정사에 오를 수 없었던 '야사(野史)' 그 자체였다.

〈에코리브르·1만8천원〉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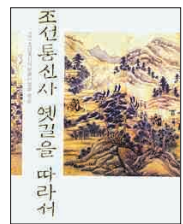
현대 카바레의 효시인 파리의 '검은 고양이' 전경 스케치(위)와 다음 공연을 알리는 포스터.



▲포르투나의 미소(전 4권)=영국인보다 더 영국사를 잘 아는' 독일의 역사소설가 레베카 가블레의 대표작. 출간된 지 10년 만에 국내 번역·출간됐다. 1360~1399년, 흑태자 및 리처드 왕의 몰락과 헨리 4세의 등극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이레·각 권 1만500원〉



▲20세기 최고 CEO들의 경영철학(전 2권)=앙리 파울, 프레데릭 테일러, 피터 드러커, 막스 베버, 잭 웰치, 앤디 그로브 등 경영학 고전이나 사상을 완성한 경영학의 대가 40명을 다룬 책. 지난 100년의 경영사(史)를 주도한 이들을 통해 21세기 경영의 길을 모색한다. 〈산지나·각 권 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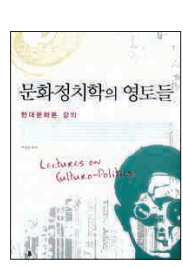
▲미켈란젤로와 교황의 천장=역사소설가 로스 킹의 스테디셀러.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을 프레스코로 채운 4년4개월(1508~1512)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보여준다. 미켈란젤로와 교황 율리우스 2세 등의 관계가 재구성된다. 〈디디북스·1만8천원〉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조선통신사의 일본 방문 400주년을 맞아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가 출간한 책. 한·일교류사의 과거와 현재를 다룬다. 지난해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 기행담의 일본 방문기 등이 들어 있다. 〈한울·1만4천원〉



▲해피홀릭=소설가 권지예씨가 등단 10년 만에 출간하는 두 번째 산문집. 여자, 딸로, 어머니로 살아온 저자의 에피소드가 재기발랄하고 세련된 문장으로 다시 태어난다. 생의 모순을 헤쳐나가는 힘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웅진지식하우스·9천800원〉



▲세계사를 바꾼 철학의 구리들=독일 철학자 폴커 슈퍼링이 쓴 서양철학 입문서. 저자는 고대·중세·근대·19~20세기 등 4개의 시대로 구분해 55명의 철학자들의 중심 사상을 다루고 있다. 책에 언급된 사상가들의 주요 저서와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실려 있다. 〈이름·1만9천700원〉



▲문화정치학의 영도들=현대문화의 이해를 돕는 17개의 강의록을 엮은 책. '포스트모던'이란 단어로 상징되는 현대문화가 어떤 요소와 욕망을 갖고 있으며, 여러 현상의 근저에 깔린 근대적 시선 및 이념의 문제를 언급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림비·2만3천원〉

청소년 눈높이 맞춰

다시 쓴 '유림' 6권

최근 완간한 소설가 최인호씨의 '유림'(전 6권·열림원)이 청소년을 위해 다시 쓰여졌다.

'최인호의 청소년 유림'(전 6권)은 저자가 '유림' 1권 출간 기념으로 열린 독후감대회에서 고등학생 뿐 아니라 초등학교도 응모한 것에 착안해 평범한 청소년들도 읽을 수 있는 책을 따로 만들자는 생각에서 기획됐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볼 수 있도록 했다.

조광조·공자·맹자·이이·이황으로 이어지는 2천500년 유가의 사상이 젊은 작가들의 경쾌한 필치로 재구성됐다. 이야기 구성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새롭게 추가된 삽화도 볼거리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글을 쓴 이 책은 최석훈·김영우·표시정·김진섭씨 등이며 삽화는 이영림·이우창·김순남·임양·김건표씨 등이 그렸다.

〈파랑새·각 권 8천500원〉

수난의 현대사 온몸으로 헤쳐온 여덟여자

여자전 김서령 지음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숱한 수난사에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삶을 일구어 여성들이 등장한다. 분단, 전쟁, 외세의 침입 등 거친 역사의 한복판으로 내몰렸던 한국 여성들은 숱한 고난에도 자신의 인생과 이웃들의 삶을 돌봐온 한국사의 원동력이었다.

인터뷰 전문 칼럼니스트 김서령씨가 집필한 '여자전(女子傳)'은 수난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헤쳐온 여덟여자의 인생역정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한국 전쟁 때 빨치산이 된 여자, 남편의 '사상' 때문에 반혁명 생이별을 감내한 종갓집 며느리, 위안부 등

한국 현대사의 파란이 삶의 곳곳에 박힌 여성들의 삶이 등장한다.

저자가 인터뷰한 이들은 한결같이 '내 인생은 처절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험한 세상을 겪게 됐지만 그들은 수난에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다.

광주시 북구 유림동에 살고 있는 고계연 할머니는 6·25 때 오빠를 찾아 산에 올랐다가 빨치산이 된 후 동상으로 양 발가락을 모두 잃는 아픔을 겪는다. 빼어난 바느질 솜씨로 빨치산의 옷을 수선하던 그녀는 이 불집을 운영하면서 오빠 3명이 남긴 조카들과 자신의 아이들을 키웠다.

안동 종갓집 며느리 김후용 할머니는 한국전쟁 때 북으로 간 남편을 54년째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가 지엄한 예법과 매번 돌아오는 제사가 삶의 전부였던 종갓집을 평생 지켜올 수 있었던 힘은 '죽으면

씩은 몸'이라는 근면한 삶의 철학이었다.

김수혜(가명) 할머니는 18살에 위안부로 끌려가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한다. 그는 탈출을 감행하다 붙잡혀 인두고문을 당한 뒤에도 치욕을 감내하다 끝내 자궁을 잃는다. 김 할머니는 "내가 아직 힘이 남았을 때 일본에 직접 찾아가 일본군 위안부 증언을 하겠다"고 버르고 있다.

이밖에 대항로 문화관에서 육영이 할머니로 이름난 바탈골 예술박물관 대표 박의순씨, 여성기업인협회의 산파로 명성황후 복권운동의 대모로 활약하고 있는 이영숙씨 등의 삶이 소개된다.

저자는 "질곡의 역사를 온몸으로 헤쳐온 여성들의 삶은 격심한 갈등 속에서도 한국현대사가 난파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말한다.

〈푸른역사·1만5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p>녹동농협 조합장 김경식</p> <p>거금도농협 조합장 박두영</p> <p>녹동신협 이사장 박형안</p> <p>녹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장원기</p> <p>고흥항운노동조합 위원장 김주식</p>	<p>녹동현대병원 병원장 백인규</p> <p>(주) 남도 대표이사 주정환</p> <p>(주) 일화건설 대표이사 김송일</p> <p>(주) 그린해운 대표이사 장진근</p>
---	--

두메 21세기 식문화를 재창조 하는 젊은 기업

- **외식업계 15년 노하우로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을 드립니다.**

이·취임식, 창립기념식, 세미나, 회갑연, 피로연, 출장뷔페, 시세상, 도시락 등 기타음식행사
- **어머니 정성 그대로 담은 100% 순수 국내산 맛깔찬 김치!**

30여종의 다양한 김치 생산으로 홍콩, 대만, 일본 등 수출 2003, 2004 광주김치대축제 최우수상 수상
- **학교, 병원, 기업체, 관공서 등 위탁급식운영 및 식자재 납품**

두메외식산업(주)

www.dumept.co.kr

두메김치(주)

www.dumekimchi.co.kr

두메푸드시스템(주)

www.dume1992.co.kr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01-2 TEL.(062)571-6000 FAX(062)571-6030